

경제

# 광주 아파트 거래 '뚝'

## 전남은 11% ↑ ... 전국 16개월來 최저

광주지역 아파트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15일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광주 아파트 거래 건수는 1901건으로, 지난해 6월(1968건)보다 67건 줄었다. 최근 4년(2006~2009년)의 같은 달 평균(2053건)보다도 7.4% 적다.

광주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해 2월 1790건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여 같은해 3월 2588건, 4월 2404건 등 2000건을 넘어섰다. 5월 1826건으로 6월 1968건으로 다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2967건 등 3000건에 육박했다가 다시 곧두박질해 올해 1월 1875건, 5월 1826건으로 거래가 줄어들었다.

전남 아파트 거래 건수는 1327건으로 최근 4년 같은 달 평균(1187건)보다 11.8%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959건 이후 1000건은 넘어섰지만 여전히 2000건에는 못미치고 있다.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도 3만 454건에 그쳐 지난해 2월(2만8741건) 이후 1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2월 3만9058건에서 3월 4만6474건으로 늘었으나 4월 4만 3975건, 5월 3만2141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 최근 4년간 같은 달 평균(4만2847건)에 비해서도 28.9% 적은 것이다.

광주 남구 봉선동 더블2단지 전용면적 156㎡는 전월보다 3250만원 올라 5억910만원(12층)에 거래됐다. 반면 봉선동 포스코다삼

은 전용 60㎡의 지난달 실거래가는 1억5500만원(18층)에서 1억 4250만원(9층)으로 1250만원 떨어졌다.

서구 처평동 금호대우 60㎡는 지난달 초 9450만원(7층)에서 20일만에 150만원 올라 9600만원에, 광산구 수완지구 우미린2차 85㎡는 전월 1억8500만원(3층)에서 1800만원 올라 2억300만원(20층)에 거래됐다.

아파트는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6월 신고 물량은 올해 4~6월 계약분의 일부이다.

구체적인 자료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ltm.go.kr>)나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대형마트 입점 안된다"

15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북구 삼각동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 등이 '북구 삼각동 대형마트 입점 저지 및 지역경제 지키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해야하며 광주지법도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기아차 노조, 투쟁수위 높이거나

### 교섭 불응땐 22일부터 잔업 거부... 생산 차질 우려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놓고 회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조가 오는 22일부터 재택근무를 열어 오는 21일까지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22일부터 주야 2시간씩 잔업을 거부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15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전남 오후 소하리공장에서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21일까지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22일부터 주야 2시간씩 잔업을 거부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말까지 주야 10시간씩 해운 현 근무형태를 유지하되,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경우 곧바로 전 사업장에서 잔업을 거부, 주야 8시간씩 정규 근무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노조 전임자와 대의원 600여명은 21일 타임오프제 관련한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하고, 29일에는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말까지 회사 측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8월 하계휴가 기간(2~6일)이 끝나는 9일 제3차 쟁대위를 소집해 추후 파업 일정과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업계는 노조가 2차 쟁대위에서도 파업 강행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은 최근 신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회사가 제2도약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안이 가결됐지만 일부 현장에

서 나타난 노조원들의 반발 움직임과 여론의 끈기 없는 시선도 노조 지도부엔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기아차는 최근 신차 K7·K5의 'K 시리즈'와 스포티지R·쏘렌토R 등 'R 시리즈'에 힘입어 지난달 내수시장 점유율을 34.5%까지 끌어올리며 1위인 현대차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회사 측은 노조의 투근 거부로 지난달 1만여대의 생산 차질을 입은데 이어 이달에도 이달 1만여대의 생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잔업 거부와 하계휴가까지 겹쳐 생산 차질이 심화돼 고객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에코윙'

### '쿨 씬머 이벤트' 실시

금호타이어(대표이사 김중호)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간 신제품 에코윙을 시즌과 엑스타 LE 스포츠, 프리미엄 제품 구매 고객과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쿨 씬머 이벤트'를 실시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뒤 온라인 무상보증서를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특급호텔 이용권과 캐리비안베이 이용권·아이스크림 기프트콘 등을 증정한다.

온라인 게임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친환경 타이어 에코윙과 주유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금호타이어 대리점을 방문해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면 선크립과 아이스쿨백·목쿠션·그늘베개 등을 선물로 준다.

당첨자는 다음달 20일 홈페이지([www.kumhotire.co.kr](http://www.kumhotire.co.kr))에서 발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GS칼텍스, 6년 연속 무교섭 임금협약

### 노사 올 임협 위임식

GS칼텍스(회장 허동수) 노사가 6년 연속 무교섭·무분규 임금협약에 합의, 선진적 노사관계를 실천하고 있다.

GS칼텍스 노사는 지난 14일 오후 여수공장 임원회의실에서 전상호 여수공장 사장과 김국진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임금협약 위임식을 했다.(사진)

노사는 제3 중질유분해시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공과 신성장 사업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 6년 연속 무교섭 임금협약에 합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C등급 판정 기업들 법정관리·부도 잇따라

### 채권은행 신용평가 '부실' 논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부도를 맞는 사례가 잇달아 올해도 은행들의 부실 평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으로 부터 C등급(부실징후기업) 판정을 받은 총 38개 기업들 중에서 건설사인 청구가 워크아웃이 아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하며, 이보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D등급(회출)을 받은 곳은 기업회생절차 등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티앤엑스중공업도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역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할 토틀보다도 최종 부도

처리돼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B등급 업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회출되는 C등급 업체가 생길 것"이라며 "은행들이 손실 등을 우려해 일부 기업 신용위험 평가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등급을 받고도 채권단 결정에 반발해 워크아웃을 차일피일 미루는 곳들도 있다.

미주제강과 계열사인 성원파이프는 모두 C등급을 받고도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없다며 채권단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삼성 '버블에코 세탁기'

#### 1년 새 시장 77% 점유



삼성광주전자에서 만드는 세탁·건조 겸용 '버블 에코 드럼세탁기' (사진)가 인기를 끌고 있다.

15일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국내 세탁·건조 겸용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지난 4월 출시한 삼성 '버블 에코 드럼세탁기'의 점유율이 지난해 5월 58%에서 올해 5월 77%로 1년 사이에 20% 가까이 성장했다.

이 제품에는 다양한 건조 기능이 추가됐고, 고온의 공기만으로 25분만에 99.9%까지 살균이 가능한 기능도 탑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대우일렉 '말하는 오븐'

#### 프랑스 등 10개국 수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세계 각국의 언어를 적용한 음성가이드 기능을 갖춘 '말하는 복합오븐' (사진)을 프랑스, 러시아, 시리아, 칠레, 페루 등 10여개 국가로 수출한다.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말하는 복합오븐'은 차별화된 음성가이드 기술을 적용, 제품 후면에 위치한 스피커를 통해 모든 메뉴와 단계별 설명을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페르시아어 등 주요 언어로 제공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751.29 (-6.72)
코스닥지수	501.73 (+1.76)
금리 (국고채 3년)	3.94% (-0.04)
원·달러 환율	1,202.50원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 남성 탈모 / 여성탈모 초전성모의원

탈모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는 '초전성모'입니다!

초전성모비타민 오일 연구와 결합을 바탕으로 탈모에 대한 혁신적 차이를 약속드립니다.

초전성모의원

010-3598-1300

054)931-4870

## 한불화장품 코랑스사업부에서 방문판매 대리점(지사장)을 모집합니다.

코랑스 사업부에서 모집 중인 방문판매 대리점(지사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요건

- 1) 20대 이상 50대 이하의 연령을 가진 자
- 2) 1년 이상 방문판매 경험 또는 1년 이상 판매 경험
- 3) 1년 이상 방문판매 경험
- 4) 1년 이상 방문판매 경험

2. 모집지역

- 1)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2) 충청권 (충청남도, 충청북도)
- 3) 호남권 (전라남도, 전라북도)
- 4) 기타 (전국)

3. 지원방법

- 1) 지원서 작성 (지원서 양식 첨부)
- 2) 지원서 제출 (지원서 제출처: 코랑스사업부)
- 3) 면접 (면접 일정 별도 통보)

4. 문의처

- 1) 코랑스사업부 (010-5074-5011)
- 2) 코랑스사업부 (010-5074-5011)

LIERAC